



솔지의 추억



윤치경
접수상담팀

노란 감꽃이 떨어지는 5월의 어느 날,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점심 밥상을 앞에 두고 반찬투정에 심술이 나 울음보를 터트렸다. 내가 늘 먹어왔던 김치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오이 무침, 그리고 조 선간장에 고춧가루와 깨를 섞은 양념장에 버무린 멸치 반찬이 반찬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, 초등학교 에 입학하고 보니 친구들이 먹는다는 소시지, 동그랑땡 반찬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.

평소 편식이 심하지 않았지만 나의 반찬 투정은 점심도 거른 채 소시지 반찬을 향한 울부짖음으 로 이어졌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누구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“먹기 싫으 면 먹지 마”라며 밥상은 치워져버렸다. 반찬 종류보다 가족의 무관심이 더 서러웠던 나는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했다.

3시간 동안 울며, 훌쩍거리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중노동에 가깝다. 허 기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기차 화통처럼 크게 들려왔지만 제 발로 밥상 앞으로 기어가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. 나의 굶주림은 점점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갔고, 5월의 감나무 밑에는 감꽃이 하나둘 떨어져 있던 때라 가족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감꽃을 하나씩 집어 먹 으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. 요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할 때도 최소한의 물과 사탕 정도 는 먹는다고 하니, 떨어진 감꽃 정도 집어먹었다 해서 ‘단식투쟁’의 순수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테다.

나의 외로운 투쟁은 윗집에 살던 ‘군저리 이모’(시골에서는 아주머니의 고향을 따 호칭을 붙였 기 때문에 그 이모님은 아마도 군저리라는 지역이 고향이었을 것이다. 내 어머니는 아직도 ‘영남댁’ 이라고 불리신다) 덕분에 다행히 끝이 났다. ‘군저리 이모’께서 “어이, 영남댁, 애를 이렇게 굶기면 되 겠어!”라며 내 편이 되어주셨고, 나는 더 버틸 힘도 없었거니와 ‘군저리 이모’의 간곡한 요청에 못이 긴 척 밥상에 앉았는데, 그때 밥상에 올라온 반찬이 ‘솔지’였다(표준어로는 ‘부추김치’, 경상도 말로는 ‘정구지’라고 불린다).

‘아~ 이런 환상적인 맛이 있을 수 있나?!’

나는 자존심도 내던진 채 ‘솔지’에 밥 한 그릇을 푹딱 비웠다. 고춧가루와 간장을 섞어 만든 매콤 짭조름(?)한 양념에 버무려져, 살짝 숨이 죽으면서 부드러워진 부추를 흰 쌀밥에 얹어 먹다 보니 동그 랑땡, 소시지는 도시의 희열건 아이들이나 먹는 인스턴트에 불과한 것들로 치부되었다. 거기에 부추 가 풍기는 봄내음까지 더해져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.

어머니가 담그신 ‘솔지’에 매료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.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은 어머니 의 ‘솔지’맛을 본 후 당신이 싸온 ‘제육볶음’과 매번 바꿔 먹자고 할 정도였다. 날마다 ‘풀 반찬’만 싸오 는 내가 안쓰러웠기 때문은 아니었을 테다.

나의 단식투쟁 이후, 부추가 재배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‘솔지’를 비롯한 부추 반찬은 나의 애호 반찬이 되었고, 20년이 지난 요즘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부추 반찬이 나올 때면 어릴 적 추억이 떠올 라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.

최근 들어 식자재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추가 각광받고 있다. 대표적인 열성 채 소로 간과 신장에 좋아 ‘간의 채소’로 불리기도 하고,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몸이 찬 사람에게도 좋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. 어릴 적 내 입맛이 선견지명을 갖 찼다고 자화자찬해도 되지 않을까.

참고로 부추의 어원에 대한 여러 설(說) 중에 ‘부뚜막에 심어 먹는 채소’라는 말이 있는데, 그 뜻 이 참 오묘하고 의미심장하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 보시기를 바란다.